

직지 탄생의 역사적 배경 정확히 익혀 후대에 전해야

2005 직지상 시상식을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지난 9월4일 '흥덕사지 발굴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청주시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이엽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이루어졌고 임승빈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영진(흥덕사지 발굴단장) 청주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흥덕사지의 발견과 주변유적(차용걸 · 충북대학교수), 흥덕사지와 출토유물의 문화재적 가치(박상일 · 청주대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흥덕사의 복원과 주변의 정비(김태영 · 청주대학교수), 세계기록유산 '직지'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위상(박문열 · 청주대학교수), 직지와 나(박병선 · 재불한국학자), 청주고인쇄박물관의 발전과제(이준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 허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황재봉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장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박병선 박사의 발표 내용이다.

'직지' 왜 프랑스에?

원제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로 약칭)'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1800년대 말 1900년 초 주한 프랑스 공사로 조선에 주재하였던 폴란드 뵘랑시가 귀국하면서 프랑스로 가져온 책들 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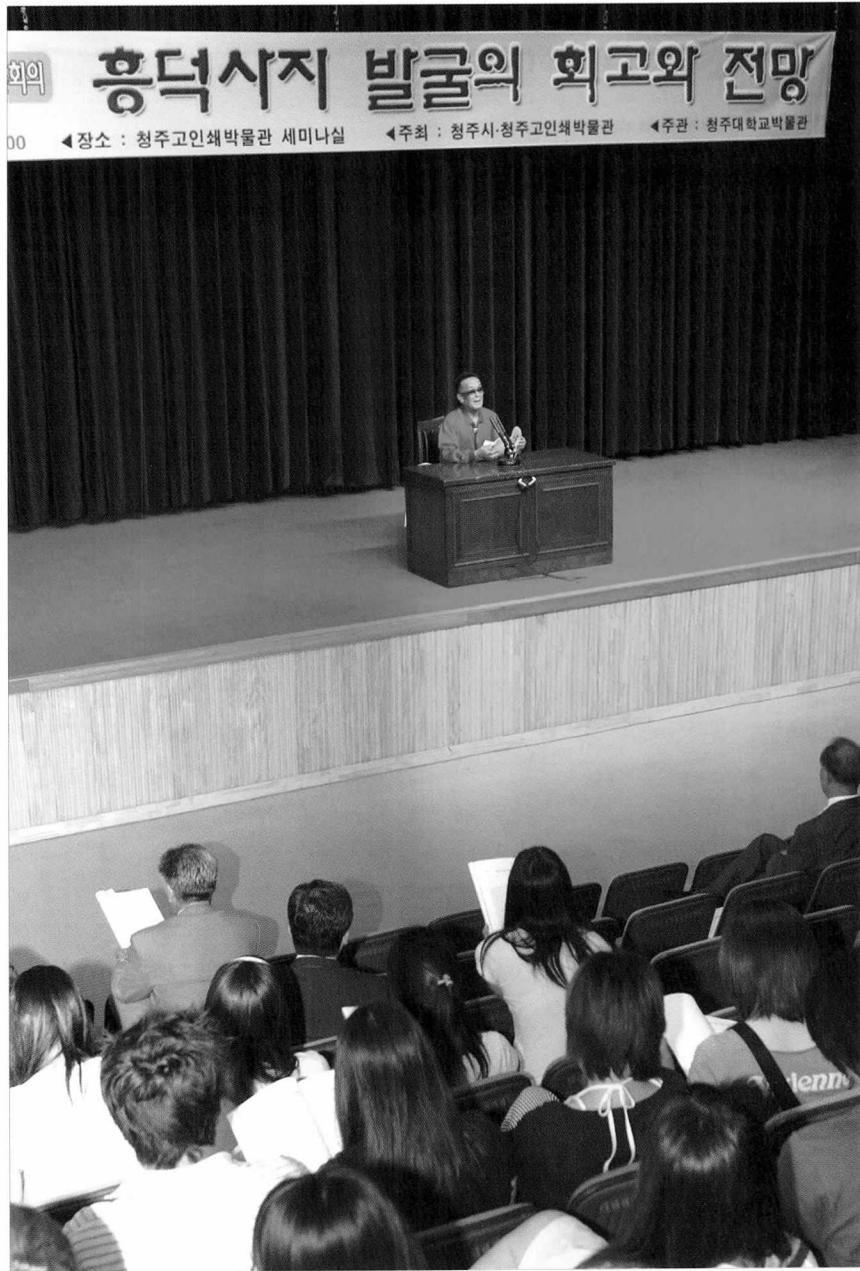
폴란드 뵘랑시는 프랑스 동양어학교 출신으로 주중 프랑스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초대 한국공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 후 우리나라의 많은 서적을 수집하였다. 아직까지 '직지'가 구입한 책인지 기증받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서적들과 함께 폴란드 뵘랑시에 의해 수집되었다. 한편 그는 단순히 책 수집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책들을 공사관에 근무하

던 모리스 쿠랑과 함께 근대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것이 '조선서지'이다.

'직지'가 언제 폴란드 뵘랑시에게 수집되었는지는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략적으로 1894년부터 1896년에 걸쳐 간행한 '조선서지' 3권에는 '직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1902년 조선서지 보유편으로 발간한 책에 '직지'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1896년 이후 1900년 4월전에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 대한제국의 참가를 협조해 준 폴란드 뵘랑시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많은 자료를 1900년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만국박람회 장내 한국관에 전시하였다. 당시 강행된 만국박람회 출품목록에 '직지'가 한국





관에 전시되었음을 알려준다.

‘직지’는 폴란드 뿔랑시가 귀국시에 프랑스로 가져왔다. 1911년 3월 27일과 30일에 그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파리 드루우 경매장에서 매매되었다. 이때에 ‘직지’를 앙리 베베르가 180프랑에 구입하였다. 그 후 그의 유언장에 준하여 1950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직지의 조사

필자는 1967년부터 1980년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였다. 처음에는 학위

논문 준비에 필요한 참고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학위를 받은 후에는 조건이 좋은 직장에서의 초청도 많았지만 사회적인 지위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조 함대장이 가져간 강화 외규장각 도서와 물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에만 열정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 도서관에서 일했다. 유네스코가 1972년을 ‘세계 도서의 해’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29회 동양학회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립도서관에서 유네스코 후원으로 동양의 보물(책)이라는 주제로 대대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극동, 동남아 및 근동아시아의 책들이 고대에서 현대에 걸쳐 각종의 서적(훈관, 양피지, 견, 종이로 만든 책 등)이 국가별로 진열되었다.

그때 한국코너를 담당하고 있던 본인은 한국고서를 물색중 한 구석에 끼어있는 ‘직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직지’의 마지막장인 39장 앞면에 보이는 간기에 따르면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쿠텐베르그 성서’보다도 70여년이 앞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처음 ‘직지’를 접했을 때에는 벽찬 감동과 희열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직지’에 씌어진 기록만으로 이 책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것을 믿을 유럽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하여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필자는 서지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난감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 내에 한국의 인쇄와 관련된 서적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한국의 금속활자와 관련된 책자를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에서 서지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필자가 만족할 만한 책자는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선 간기에 쓰여 있는 날짜를 중심으로 고려사 후반기, 일본인쇄사, 중국인쇄사 등 활자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여 우선 개념을 파악하였다.

특히 간기에서 ‘청주 흥덕사 인쇄’부분을 찾아 ‘청주 흥덕사’의 자취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청주대학교 박물관이 흥덕사 터를 확인하였다.

이제부터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였다. 일단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지우개로부터 시작하여 감자, 나무 흙(점토)으로 활자를 만들어 찍어 얻은 먹 자국과 직지에 있는 먹 자국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나무로 판을 짜서 목판 인쇄틀을 만들 후 실험용 재료로 만든 활자를 목판틀에 넣어 찍어보아 먹 자국을 실험하였다.

그 후 철로 만든 금속활자를 구입한 후 같은 방법(목판 인쇄틀 이용)으로 실험한 결과 먹 자국이 직지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쇠풃자국이 있어 불란서 소재 대장간에 문의하였다. 그 결과 이것은 금속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 활자의 줄이 고르지 못한 것은 초판이 단단하지 않음으로 생긴 현상이며 활자 전체가 금속활자가 아니고 부분부분 목활자를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비슷한 형태의 같은 활자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발견되어 이를 50배 확대하여 비교 대조해 보니 정확히 일치하였다. 이로써 직지가 활자를 사용하여 찍은 인쇄본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직지가 현존 유일 금속활자본인지 몰랐다. 또한 고려 말기에 찍은 책들이 기록상에 보면 많이 있어 이 책이 현존 유일이 아닌 여러 금속활자 인쇄본 중 하나라고 소개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고려말기에 금속활자로 찍은 책들이 '직지' 외에도 국내에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로 확신을 얻어 1972년 5월에 열린 프랑스 국립도서관 주최 (books) 전시회에 '직지'를 금속활자본이라고 출품하였다. 또한 그 해에 열린 (국제 동양학 학자대회)에서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필자의 발표를 들은 전공학자들은 크게 놀랐다. 그 후 이에 관심있는 동양학자들은 물론이고 인쇄관계자 및 언론 보도계에 있는 많은 인사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약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에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설명으로 납득시켰고

모두는 만족한 마음으로 납득하고 돌아갔으니 수고에 비하여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찾아와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한 이상 이들이 씨앗이 되어 가꾸고 전파하여 주기를 기원하며 정성껏 답변했다.

1972년 필자의 발표 이후 유럽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는 직지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에 대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이것을 계기로 일본 학계의 초청을 받아 1977년부터 4개월간 일본지역을 순회하면서 '직지' 등 한국인쇄에 관하여 강연을 했다.

1972년말 직지의 영인판을 가지고 귀국하여 한국학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리고 육영수여사의 후원에 힘입어 한국의 문화재관리국에서 영인본을 발간했다. 이 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초고가 끝난 후 반드시 필자의 감수를 받는다는 약속하에 한국의 서지학자에게 해제를 부탁하였다. 그 당시 해제를 쓰신 분과 문화재관리국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해제 중 '한국 서지학자들이 금속활자라고 고증하였다'라는 구절로 인하여 파리 국립도서관과 한국문화재관리국 그리고 서지학자들 사이에 문제로 확대되어 이제까지 불신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서지학자들도 금속활자라고 고증하였다'라고 표현했어야 옳았다.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의 소망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이 차관협상을 위해 국민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전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하기 전 필자는 미테랑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 직지와 외규장각도서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렸다. 그 후 이 사실을 주불대사관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다. 당시 차관협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대통령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생각에 잠기시느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제궁에 들어가셨다고 했다. 그러나 회담장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생각지도 않은

직지와 외규장각도서를 친견시키면서 이렇게 훌륭한 문화재를 만든 나라의 대통령이 오셨다고 전두환 대통령을 극찬하였다고 한다. 전 대통령께서는 회담을 마치고 나오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파리의 하늘이 이처럼 맑고 청명한지 몰랐다"며 그 당시의 심경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 후 대통령은 귀국하여 특별지시로 흥덕사지 복원과 전시관 건립을 지시하여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1997년에 처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1972년 직지와 인연을 맺은 후 이 책을 발간한 곳을 20여년 만에 방문한 것이다. 이때부터 청주시에서는 필자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 김현수 시장님 재임시 김현문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명예시민증을 1998년에 받았다. 그리고 나기정 시장님의 노력으로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다. 또 그동안 필자의 마지막 소원으로 꼽았던 한국의 인쇄와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는데도 한대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02년 파리에서 발간할 수 있었던 일은 필자에게는 크나큰 영광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의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직지가 왜 귀중한 것인지를 알고 직지가 출판된 그 '때의 역사적 배경, 호구지책으로 연명하기에 급급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지식전수를 위하여 노력과 지혜를 모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으로 남겨주신 금속활자본이 세계 최고이며 유일본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빛낼 사람은 여러분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로웠던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문화조국의 건설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지를 알리며 손에 손을 잡고 돌진하기 바란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세계화를 위한 홍보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직지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